

영국 노동시장에서 이민 청년들의 현주소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이정희 (영국 워릭대학교 박사과정(노사관계))

■ 머리말

지난 8월 초 영국 런던 일부 지역을 비롯해 버밍엄, 맨체스터, 리버풀 등지에서 발생한 상점 약탈과 방화 사건¹⁾은 닷새 만에 외견상으로는 막을 내렸고, 체포된 2,006명 중에 1,135명이 기소됐다.²⁾ 이번 사건은, 연립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시위 때와는 다르게, 주동세력도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거주지 인근의 혹은 시내 중심가의 상가를 털고 방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한 흑인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인종 갈등이 주요인으로 꼽혔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만표출 형태, 즉 상점 약탈과 방화, 이에 대한 모방효과(copy-cat effect)까지 날으면서 사건의 본질에 대한 더 다양한 분석을 낳게 했다. 도덕적 붕괴에서부터 과도한 소비주의까지, BBC는 다양한 분석을 소개했다³⁾: 복지혜택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비롯

1) 대다수 언론은 이번 사건을 폭동(riots)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글은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불만의 누적으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 운동이고, 경제적 갈등을 축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 폭동과 같은 ‘적대적인 용어’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박노자(2011)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글은 청년층의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 ‘사건’이라는 다소 중립적인 표현을 택하였다.

2) 영국 경찰청 발표, BBC, 2011년 8월 25일자, ‘London riots arrests reach 2,000, Met Police says.’
<http://www.bbc.co.uk/news/uk-14668770>

된 '사회를 상대로 무엇이든 요구해도 된다'고 여기는 문화; 사회가 제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사회적 배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부성의 결핍; 연립정부의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부정적 반향; 취약한 치안행정; 인종주의; 갱스터 랩과 갱 문화; 단지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쇼핑 폭동;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하고 싶은' 충동을 함께 느끼는 기회주의; 소셜 네트워킹의 파워 등이 그것이다. 사건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접어두더라도, "이번 폭동은 '가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캐머런 총리의 분석과 달리 분명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⁴⁾는 것이다.

이 글은 이민 청년층들에 대한 사회 및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지속되는 불안정성 등이 이번 사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사건이 발생한 주요 지역과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본다. 이어 이민자들 중에서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민족 중의 하나인 방글라데시 청년들의 사례를 분석한 논문을 바탕으로 청년 이민층들이 '일자리'를 둘러싸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한다.

■ 사건 가담자들, 어디에 사는 누구인가

최근 가디언은 유례없이 법원으로부터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 중 1,000여 명에 관한 자료를 받아 그들이 사는 지역간의 관계를 분석했다.⁵⁾ 이에 따르면, 우선 런던 지역에서는 사건 가담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 혹은 인근 지역의 가게와 상점들을 약탈한 반면, 버밍엄과 맨체스터 등지에서는 도시의 변두리나 그 지역의 위성지역에 살고 있다가 도심으로 몰려와

3) BBC, 2011년 8월 11일자, 'The competing arguments used to explain the riots.' <http://www.bbc.co.uk/news/magazine-14483149>

4) Guardian, 2011년 8월 19일자, 'England rioters: young, poor and unemployed.' <http://www.guardian.co.uk/uk/2011/aug/18/england-rioters-young-poor-unemployed>

5) Guardian, 2011년 8월 19일자.

서 약탈과 방화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답자들의 특성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주로 가난하고 궁핍한 지역의 출신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디언이 입수한 데이터를 분석한 알렉스 싱글톤(Alex Singleton) 교수에 따르면, 가답자 10명 중 4명(41%)은 영국에서 가장 궁핍한 지역 10곳 중 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 또한 가답자의 66%는 세계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직전인 2007년에서 위기가 심화된 2010년 사이에 더 경제적으로 가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알려진 것처럼 사건 가답자들은 주로 청년 남성이었다. 런던 지역 내 법정에서 출두한 용의자들 가운데 66%는 25세 미만이었으며, 11~17세도 17%나 되었다. 30대 이상도 있었지만 그 수는 적었다. 또한 90% 이상은 남성이었다. 싱글톤 교수는 “(사건 용의자들이 행한) 약탈은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사건이 앞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배적 조건과 제약 요인에 대한 중요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붕괴된 사회(broken society)는 언제 어디에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실업, 교육, 아동빈곤의 상관관계

가디언의 분석은 공공정책연구소(IPPR, 2011)의 분석과도 거의 일치한다. IPPR은 가난과 박탈에 대한 여러 요인들과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지역에서 청년 실업과 아동 빈곤이 유의미하게 영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 지역의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역적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분석에서 IPPR은 실업률, 청년실업률, 교육수준, 그리고 아동빈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업률

실업률과 사건 발생 지역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한 해 평균 영국 실업률은 7.7%였다. 하지만 런던(8.7%), 버밍엄(13.0%), 리버풀(12.6%), 맨체스터(11.5%), 노팅엄(14.8%) 등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의 실업률은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영국 노

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16~24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사건 발생지역일수록 더 높았다. 지난 한 해 평균 청년실업률은 19.3%였던 반면 런던(22.1%), 버밍엄(24.7%), 리버풀(26.9%), 맨체스터(22.8%), 노팅엄(27.6%) 등지에서는 최소 22%에서 최대 28%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런던 내에서도 지역별로 실업률의 차이는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중 하나인 런던 동부 해크니의 경우 실업률은 영국 평균보다 2.4%포인트 높은 10.1%였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영국 평균의 1.5배에 가까운 34.0%에 달했다. IPPR은 이들 지역의 높은 청년실업률은 2008년 경기 침체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청년 실업이 현저히 낮아진 이래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수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기간의 실업은 청년들에게 특히 낙인효과(scarring effect)를 준다. 장래 임금전망은 물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IPPR은 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견습이나 취업체험 프로그램이 갈수록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서라도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빈곤

IPPR은 또한 아동빈곤 수준과 사건 발생 지역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역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거비용을 제하기 전을 기준으로 할 때, 런던의 아동빈곤 수준은 20%로, 영국 평균(21%)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주거비용을 제한 뒤에 측정한 런던의 아동빈곤 수준은 38%로 영국에서 가장 높았고, 평균(30%)과 견줘 현저하게 높았다. 특정 지역에서 아동빈곤의 영향을 감안하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빈곤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률과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들이 런던에는 많다. 아이를 가진 여성의 낮은 고용률은 런던의 인구구성 특성과 결합해 비노동가구(workless households)에서 자라는 아동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런던 내 몇몇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30%를 넘는다. 해크니는 36.1%였다. 런던에 살고 있는 노동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높은 임금에 의해 어느 정도 높은 생활비를 보상받는다 하더라도 런던 임금프리미엄은 파트타임 노동자나 저숙련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는 부모들이 신입사원(entry-level work)

수준의 일자리로 옮기는 것조차 어렵게 한다. IPPR은 가난이 범죄를 위한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가난은 가족들에게 먹고 살 만큼은 벌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IPPR은 정부에 대해 더 나은 유연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과 보편적인 아동보호에 우선을 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는 가족들이 그들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아동빈곤과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관한 지표들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줬다. 16~64세 인구 가운데 중등학교 졸업자 혹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직업교육과정 수료자를 뜻하는 NVQ1⁶⁾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이 낮았다. NVQ1+의 기술수준 소지자는 영국 평균 80.2%였다. 이에 반해 런던(76.3%), 버밍엄(71.6%), 리버풀(75.7%), 맨체스터(73.2%), 노팅엄(73.0%) 등은 평균과 견줘 낮았고, 특히 런던 동부 해크니는 72.9%, 런던 서부 일링은 70.7%를 기록했다.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영국 평균 10명 중 1명꼴(11.3%)이었던 반면 버밍엄은 5명 중 1명꼴(19.4%)이었고, 다음으로 리버풀(17.2%), 노팅엄(15.7%), 맨체스터(15.0%) 등의 순이었다.

■ 비백인, 거주지, 그리고 노동시장

또 하나 유의미하게 살펴볼 내용은 사건 발생 지역이 다른 곳들에 비해 비백인 거주자의 비

6)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는 특정 분야의 일과 관련된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실무주의 교육으로 이뤄진다. NVQ 1이 가장 낮은 단계인데, 이는 중등학교 졸업시험에서 D등급을 받았거나 GNVQ(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즉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 과정이지만 NVQ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분야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를 뜻한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기술 및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NVQ 4는 넓은 의미에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율이 높다는 점이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01년 현재,⁷⁾ 영국 인구 가운데 백인이 아닌 민족(non-White)⁸⁾ 비율은 7.9%였다. 하지만 잉글랜드로 좁혀서 보면 이보다 높은 9.1%이다. 지역별로는 단연 런던(28.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버밍엄이 속한 중서부 지역(11.3%)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런던 뉴엄(Newham)이 60.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런던 해크니(40.6%), 런던 해링지(34.4%), 런던 크로이던(29.8%), 버밍엄(29.6%), 맨체스터(19.0%) 등의 순이어서 사건 발생과 비백인 거주지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신 추이를 보기 위해 영국 통계청(ONS) 자료⁹⁾를 살펴보았는데, 2011년 5월 현재 영국 내 비백인 인구 비율은 10년 새 12.5%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버밍엄의 비백인 비율이 2001년 29.6%에서 32%로 높아졌고, 맨체스터의 경우도 19.0%에서 22.7%로 증가했다. 1991년과 2001년을 비교할 때 잉글랜드 전역에서 비백인 인구 비율이 6.2%에서 9.1%로 2.9%포인트 증가한 반면, 버밍엄에서 8.2%포인트(21.4 → 29.6%), 맨체스터에서 6.4%포인트(12.6 → 19.0%)의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점과 비백인 그룹은 특정 지역에 모여 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비백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내 비백인의 비율이 더 높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비백인 그룹의 연령대와 노동시장 참여여부이다. 이들은 백인 그룹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리다. 버밍엄의 경우,¹⁰⁾ 백인 영국인들은 다른 그룹들에 비해

7) 영국의 인구 통계는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데, 현재까지는 2001년 통계가 최신판이다. 2011년 상반기 전체 인구를 상대로 한 설문지가 배포, 수거됐고 현재 분석 작업 중이다. 통계청(ONS)은 조사 항목을 수정, 검토하는 등의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통계자료를 공개하는데, 이 글에서는 2001년 통계에 기반을 두되 변화 추이를 읽기 위해 최신 통계도 인용한다.

8) 통계청에서는 백인 그룹을 백인 영국인, 백인 아일랜드인, 그 외 백인으로 한정한다. 소수민족(ethnic minority)으로 불리는 그룹은 혼혈(Mixed Groups : 백인+캐리비안 흑인, 백인+아프리카인 흑인, 백인+아시아인, 그 외), 아시아인/영국 태생 아시아인(Asian or Asian British), 흑인/영국 태생 흑인(Black or Black British), 중국 및 다른 민족(Chinese and Other Ethnic Groups)을 일컫는다.

9) "Resident Population Estimates by Ethnic Group (Percentages)," Neighbourhood Statistics, May 2011. <http://www.neighbourhood.statistics.gov.uk/dissemination/LeadTableView.do?a=3&b=276800&c=birmingham&d=13&e=13&g=373014&i=1001x1003x1004&o=322&m=0&r=1&s=1314907858993&enc=1&dsFamilyId=1812> (retrieved on 1 Sep 2011)

10) Birmingham City Council, 2001 Population Census in Birmingham: Cultural Background. <http://>

고령층 비율이 높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이 영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지역 내 다른 민족그룹에 비해 높았다. 반면, 버밍엄에 사는 파키스탄, 캐러비안 흑인, 인도 출신 등은 연령층이 낮은 반면 실제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보다 낮았고, 특히 여성일 경우 더 그랬다. 때문에 실업이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고, 대신 공식적인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않은 비율 역시 높았다.

■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이와 관련, 런던 중심부에 사는 방글라데시¹¹⁾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을 다룬 Salway (2008) 논문이 검토할 만하다. Salway는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면서 주류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그 사회에서의 소외가 그들 민족그룹 내 의존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로 2세대인 방글라데시 청년들의 다수는 영국 일자리(주로 사무직)를 전형적이고 일반적이며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방글라데시 문화와 행위양식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양가적 감정과 연관돼 있다. 청년들은 방글라데시 출신들이 많이 근무하는 레스토랑 일자리를 부모세대의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일자리가 장시간 및 야간/새벽근무(anti-social working hours), 제한된 휴가, 저임금, 힘든 육체노동 등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레스토랑 일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있음에도 응답자 다수는 여전히 그 부문과 연계를 갖고 있었고, 레스토랑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었다. 새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 레스토랑 일자리는 자격과 경험을 불문하고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선택지이다. 인

www.birmingham.gov.uk/cs/Satellite?c=Page&childpagename=SystemAdmin%2FCFPageLayout&cid=1223096353827&packedargs=website%3D4&pagename=BCC%2FCommon%2FWrapper%2FCFWrapper&rendermode=live (retrieved on 1 Sep 2011)

11) 2002~03년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들의 18%가 실업상태로 백인(5%), 인도출신(7%) 등을 비롯, 전 민족그룹 내에서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도 특히 높았는데, 노동가능인구 남성 중 30%가 해당되었다.

터뷰에서 확인된 것은, 대부분의 경우 ‘고용’에 관한 생각과 기회에 노출되는 빈도와 대안이 아주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쌀과 카레가 우리가 아는 전부”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근무하는 주요한 일자리는 소매점, 특히 슈퍼마켓이고, 다음이 패스트푸드점이었다.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들이다. 어떤 응답자들은 자영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대개 재정적 문제에 제약을 받는다. 영어 실력이 부족한 몇몇 사람들에게는 택시기사나 다른 선택지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같은 직업을 갖고 싶어도 대부분은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어디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응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 정보가 거의 없다고 했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일자리를 위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한다고 밝혔다. 일부 응답자들은 런던의 다른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있었지만 오래 일하지 못했고, 집과 가까운 곳의 일자리를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즉 고용기회 역시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 선택지에 대한 한정된 인식의 지속과 어떤 특정한 일자리에 대한 선호는 통합과 배제의 과정의 상호작용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몇몇 응답자들은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기반한 심한 차별과 배제 - 해고, 승진누락, 임금차별 등 - 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좀 더 분명한 이슬람 정체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직접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했고, 반이슬람 정서가 구직과정에서 주요한 장벽이라고 말했다. 한 응답자의 말이다. “사용자들은 차림새만 보고 나를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내 아들은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 이름에서부터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다.” 또 다른 청년의 증언이다. “카지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리사로까지밖에 승진하지 못했다. 주방장은 되지 못한다. 비공식적으로 사용자들은 주방장 호칭을 주지만 그들은 이와 관련된 어떤 서류도 주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우리 연봉은 16,000파운드가 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10,000파운드에 불과하다.”

인종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공포가 사람들의 시야를 얼마나 좁게 만드는지도 분석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받기 위한 민족집단간의 네트워크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알선소(Job Centre)와 같은 주류 사회의 알선기관으로부터 배제당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이 의존성은 더욱 높아진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Job Centre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소개해줄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전화

번호를 건네주는데, 그쪽으로 전화하면 이미 결원이 채워졌다는 답변만 듣게 된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을 통한 우리만의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또한 그 네트워크 안으로 제약된다는 반작용도 있다.

■ 맺음말

살펴본 것처럼 이번 사건은 실업, 특히 청년 실업과 아동빈곤,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사건 발생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는 비백인 인구들이 영국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배제와 차별은 해당 민족그룹에 대한 강한 의존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주자들은 대개 탈규제화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불안정성, 애매한 고용관계로 특징지어지는 탈규제화된 노동시장의 가장 힘든 영역인 호텔, 식당업 같은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성산업, 농업,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May et al., 2006). 이러한 노동자들은 아주 다양한 형태(때론 ‘고용’이 아닌)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사용 가능한 극심한 형태의 유연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자들이 이러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이유로 차별, 언어능력, 불법성, 자격수준의 취약함 등이 꼽히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불평등은 이주노동자들이 영국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임금과 조건에서의 일자리를 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이민은 이주자와 사용자, 국가경제 모두를 위한 윈·윈 전략으로서 지탱하기 더욱 어렵다. 이주자들의 조직이나 노동조합들은 특히 불경기 때에 이주민들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우려를 표하지만, ‘영국 일자리는 영국 노동자들에게 (British Jobs for British Workers)’라는 요구는 어느 정도의 대중적 반향을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 규제(Immigration controls)는 고용에서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국 이민정책은 현실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번 사건에 드러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카메룬 정부의 차기 행보가 주목된다. **KLI**

참고문헌

- 박노자(2011), 「영국 빈민들의 반란을 왜 ‘폭동’이라 부르나, 『한겨레』, 2011년 8월 12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mational/europe/491539.html>
- Bridget, Anderson(2010), “Migration, Immigration Controls and the Fashioning of Precarious Worker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4(2), pp. 300~317.
- IPPR(2011),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iot areas and deprivation – an IPPR analysis.” <http://www.ippr.org/articles/56/7857/exploring-the-relationship-between-riot-areas-and-deprivation--an-ippr-analysis>
- May, J., J. Wills, D. Kavita, E. Yara, J. Herbert, and C. McIlwaine (2006), *The British State and London’s Migrant Division of Labour*, Lond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Salway, S.(2008), “Labour Market Experiences of Young UK Bangladeshi Men: Identity, inclusion and exclusion in inner-city London,” *Ethnic and Racial Studies* 31(6), pp. 1126~1152.